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7. 29.(목) 총 2매(본문 1, 참고 2)		
담당 부서	지도교섭과	담 당 자	• 과장 임태호, 서기관 김병훈, 주무관 태종완 • ☎ (044) 200-5560, 5561, 5564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담 당 자	• 과장 허남근, 지도계장 김동원, 주무관 유대근 • ☎ (064) 780-2422, 2429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 사고해역 급파, 예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1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어선 G호(서귀포선적, 29톤, 승선원 9명)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인 중이라고 29일(목) 밝혔다.

G호는 7월 28일(수) 22:00경 한·일 중간수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G호가 조업하던 해역은 한·일 중간수역으로써 주변에 10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항해·조업하고 있어 자칫 표류가 길어지면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무궁화25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29일(목) 06시경 G호를 구조하고 선원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였으며, 29일(목) 16시경 서귀포항에서 인계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매년 제주남쪽 원거리 해역에서 기관고장에 의한 조난 등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기에, 원거리 해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업인은 출항 전 기관 예비품 및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유대근 주무관(☎ 064-780-24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